

# 제6회 아카시아토론회에 참가하고 나서

Looking Back Upon the ARCASIA Forum 6

황길순, 김윤정 / 경원대 건축과 4학년  
by Whang, Kil—Soon & Kim, Yoon—Jeong

FEATURE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면서 본 북경은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듯한 고층 건축물들의 외관상 세련미가 돋보였으며, 고대와 현대의 미가 잘 조화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특히 서태후의 여름별장이었다는 이화원은 규모면이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대륙적 기질의 소산으로 생각되었다. 거대한 스케일, 거대하면서 다양한 문양의 장식품들과 기이한 모양의 돌로 된 정원,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지난 3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한 '91한국건축전에 'Art Plaza'라는 작품으로 학생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해외연수 특전으로 '91. 9. 26~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회 아카시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해외여행 경험도 없고 영어에도 미숙한 우리는 국제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고 두려움마저 느꼈다. 하지만 금년에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학생 잼버리 대회가 없어 특별히 부여된 임무가 없고, 또한 국제위원회 위원들께서 모든 것을 돌봐 줄 것이라는 협회 담당 직원의 설명에 상당히 위안이 되었다. 금번 목적이 아카시아 토론회 참가였지만 실제 우리로서는 발표논문 및 토론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만큼 영어 구사능력이나 국제행사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 건축물을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 해외견문을 다소나마 넓힐 수 있었다는 데에 금번 방문의 실제적인 의의를 두고 싶다. 따라서 견학내용 및 소감과 함께 Forum 6 참가시 들은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고서에 대하고자 한다.

## 〈9월 23일—맑음, 이화원〉

난생 처음으로 해외 나들이를 한다는 기대감도 잠시 뿐이고 너무도 오랜시간 비행기를 탑승한 탓에 지루함과 피곤함으로 인해 북경의 향산반점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휴식을 했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제대회이고 보니 얼떨떨한 상태이어서

국제위원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 몰라 안타까웠다.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면서 본 북경은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듯한 고층 건축물들의 외관상 세련미가 돋보였으며, 고대와 현대의 미가 잘 조화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특히 서태후의 여름별장이었다는 이화원은 규모면이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대륙적 기질의 소산으로 생각되었다. 거대한 스케일, 거대하면서 다양한 문양의 장식품들과 기이한 모양의 돌로 된 정원,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 〈9월 24일—맑음, 만리장성, 정능〉

오늘은 늦잠을 자다 김지덕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눈을 떴다. 국제위원님들이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시는 동안 우리는 대회 주최측에서 준비한 별도 관광 일정을 선택하였다. 오늘의 일과는 북경의 만리장성과 명13능의 하나인 정능을 견학하는 것이었다. 아침 8시 30분에 왕선생의 안내로 인도네시아 그룹과 인터내셔널그룹으로 각각 나뉘어 버스를 타고 북경의 서북쪽 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가니 만리장성에 다다르게 되었다.

기원전 2세기경 진의 시황제가 천하통일의 대위업을 이룩한 후 구축하였다는 만리장성은 달에서 보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축조물을 보며 약간은 허전함과 함께 우리 조상님들의 숨결이 깃든 정감있는 우리의 건축공간이 웬지 모르게 그리워졌다. 다음 코스인 정능은 1584~1590년까지 건축된 명왕조 시대의 주위준이라는 황제의 묘지로서, 서로 통하는 5개의 대전(大殿)으로 대들보와 기둥이 없는 둥근 천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여기에서 출토된 문물은 정능진열실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 〈9월 25일—맑음, 이화원, 천단공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몸은 피곤해도 오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오늘 역시 인터내셔널 그룹과 함께 왕선생의 안내로 23일 견학한 이화원과 그 내부에 있는 불향각을 견학하였다. 이 곳은 중국 정원예술을 집대성한 듯이 웅장하고도 섬세한 중국문화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볼 수 있는 절작이었다. 우선 4층 건물의 불향각을 올라가는 계단과 20개의 손을 가진 불상을 보면서 중국 공예기술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었다. 흥분된 감정을 채 식히기도 전에 이화원 소주가(蘇州街)를 견학하였다. 이테리의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소주는 'Palace Bazaars'라 불리는 이화원과 더불어 고대 중국의 유일한 '궁시(宮市)'였다. 장난감을 보는 듯한 아기자기함과 주위를 돌 수 있는 거리외에 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인상깊은 거리였다.

오후의 관광코스는 천단공원이었다. 축의 개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천단공원은 원형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중국 고대 건축물의 내부장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란함, 섬세함과 거대함에는 우리의 '정다움'이나 '부드러움'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을 내려다보고 지배하려는 건물 이미지로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보니 연길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온 대표단일행들께서 도착해 계셨다. 백두산의 경이로운 풍경에 모두들 감탄해 하시며 백두산 천지의 물맛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 〈9월 26일—맑음, 북경 시내 집단주거, 천안문, 자금성〉

오늘은 중국건축사협회가 참가자 전원을 위하여 공식으로 준비한 관광 견학일정이다. 북경 시내의 집합주거와 천안문 앞 광장, 그리고 자금성을 견학 하였다. 이제까지의 일정 가운데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날이었다. 오전의 집합주거 견학은 참으로 유익한 코스였다. 우선 중국 현대건축의 현주소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첫번째 주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중정 Type의 주거로서 특색이 있다면 큰 중정 옆에 작은 중정을 배치했다는 점과 적지 않은 공간을 자전거 창고로 할애했다는 점이였다.

내부는 방 3개와 주방, 화장실 그리고 식당 겸 거실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아기자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크기는 18평 정도의 규모였다.

두번째 주거는 평범한 연립주거로서 단지 특색이라면 이화원의 지붕 형상을 인용한 듯한 지붕곡선이였다. 오전의 주거견학시 느낀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도 전통이라는 개념의 현대적 해석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절대왕권시대의 거칠 것 없는 공간표현이 아니라 어느정도 제약된 조건하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시 중심부에 위치한 천안문 광장과 화려하고 웅대한 자금성을

견학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김환성 선생님과 우리는 천안문의 반대쪽에 위치한 신문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여러 선생님께서 천안문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천안문 앞으로 약속시간에 맞추어 갔으나 우리 일행만 있을뿐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와 왕선생은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 일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자 그제서야 우리는 왕선생의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음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지던 방문일정이 벌써 마지막 7일째를 맞았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재삼 정리해 보았다. 중국 건축의 거대함과 섬세함, 좋은 점과 이해하지 못할 점 등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국제미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신문문 앞으로 가 보았으나 역시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일행을 기다리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였다. 김환성 선생님과 우리는 낙심하여 천안문 광장으로 다시 가보니 김지덕 국제위원장님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계셨다. 문화갤러리 앞에 차가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인력거를 타고 문화갤러리 앞에 도착하니 버스가 있어 향산반점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 미국땅에까지 와서 일행을 잃고 우왕좌왕 해매었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9월 27일—맑음, Forum 6 참가〉

Forum 6의 주제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New Thoughts on Mass Housing in the Asian Context'라는 주제로 각국에서 다섯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오전에 중국의 Lin Zhiqun, 일본의 Akira Ozawa, 그리고 인도의 Raj Rewal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오후 2시부터는 말레이시아의 Lew Kwong Yan과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중국 Tsinghua 대학교 건축과 Lin Zhiqun 교수는 '중국의 주택—전통과 혁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전통 주거양식을 설명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3가지 전망을 보면, 첫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난 40년간의 주거양식의

변화와 개발단계를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둘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건축사들이 자기 표출 보다는 자신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과감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일본 동경대학교 Akira Ozawa교수는 집단 공동주택의 새로운 형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머리에, 동경이 국제적인 도시의 하나로 급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 이로 인한 주택공급의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경의 경우와 같이 중국도 이제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내의 집단주택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활양식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인도의 Raj Rewal, 말레이시아의 Lew Kwon Yan,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저녁에 Dancing Party에서는 각 나라마다 장기자랑도 하고, 음악에 맞추어 서로 춤을 추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황길순이 '88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Hand in Hand'를 불러 지난 88년 잠실경기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리던 올림픽 폐회식 장면이 순간 떠오르기도 했고,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을 보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기억속에 이 곡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했다.

#### 〈9월 28일—맑음, Forum 6 참가〉

오늘은 Forum 6 공식행사의 마지막 날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전날의 발표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과 참가자들의 질의 및 제안,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Forum 6가 마무리되었다.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지던 방문일정이 벌써 마지막 7일째를 맞았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재삼 정리해 보았다.

중국 건축의 거대함과 섬세함, 좋은 점과 이해하지 못할 점 등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이처럼 좋은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이번 방문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친절을 아끼지 않으신 국제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